【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제8조 관련)

Ⅰ. 출장개요

○ 목 적

- 2026년 정책과제 「제주-산둥성 교류 확대 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1차 현지조사
- 산둥성-한국 교류 현황과 지속 협력 사례(제도 장치・지속 요인) 확인
- 제주연구원이 마련한 산둥-제주 협력모델(안)(경제협력・지속가능 교류협력)에 대한 산둥성 기관의 의견 수렴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방안, 해양레저・선박 MRO・요트산업 협력 가능성 확인
- 산둥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공동연구 협력 체계 구축과 연구 자문위원 위촉 협의

○ 기 간: 2026. 10. 12.(월) ~ 10. 16.(금), 4박 5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중국 산둥성 지난시・칭다오시, 산둥성 상무청, 산둥사회과학원, 산둥성 외사판공실, 산둥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산둥원양해운그룹(SMC), 칭다오시 크루즈・요트협회

- 산둥성은 2025년 지역총생산 10조 위안을 상회한 중국 북방 최대의 경제성(省)이며, 한국은 산둥의 단일 국가 1위 교역 상대로서 산둥 내 한국기업은 누적 8,700여 개사임
- 지난은 성정부 소재지로 성 단위 행정기관(상무청・외사판공실)과 성 직속 종합연구기관(산둥사회과학원)이 소재하며, 칭다오는 산둥 최대의 항만・해양 도시로 제주-칭다오 정기 항로의 운항 선사와 해양 연구기관・해양레저 단체가 소재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산둥성은 2008년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하였고, 2024년 교류주간 13개 분야 의향서 교환과 2025년 10월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정기 항로 개통으로 교류 분야를 확대하여 왔으며, 2027년 자매도시 격상을 준비하고 있음

○ 여행자 인적사항: 정지형 연구위원, 양자수 부연구위원 (제주연구원 2명)

○ 세부 일정

일자	구분	주요 내용
10. 12.(월)	이동	제주 → 김포(KE1118, 07:00) → 인천 → 지난(TW605, 14:15 도착)
10. 12.(월) 오후	산둥성 상무청	산둥-한국 경제협력 기제·사례 청취, 제주 측 경제협력 모델(안) 의견 수렴 참석자: 상무청 아주처 쉐리 부처장, 제주연구원 정지형 연구위원·양자수 부연구위원
10. 13.(화) 오전	산둥사회과학원	연구 결과 공유·자문, 정례 포럼·공동연구·연구자 교류 협의 참석자: 사회과학원 취펑샹 원장, 관디디안 대외협력처 주임 외 3명, 제주연구원 2명
10. 13.(화) 오후	산둥성 외사판공실	산둥 대외교류·대한국 교류 현황 청취, 자매도시 격상 이후 협력 구상, 지속가능 교류협력 모델(안) 의견 수렴 참석자: 외사판공실 아주처 왕샤오빙 처장·진위강 부처장·리연통 부처장, 산둥행정학원 조뤼 교수·지난대학 장수 교수 등 5명, 제주연구원 2명
10. 14.(수)	이동	지난서역 → 칭다오북역(고속철 G6913, 09:45~11:55)
10. 14.(수) 오후	산둥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산둥 해양경제·해양 협력 현황 청취, 해양 공동연구·11월 포럼 준비 협의 참석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쉬광핑 원장·박문진 연구원·주젠펑 대외협력처 주임 등 3명, 제주연구원 2명
10. 15.(목) 오전	산둥원양해운그룹(SMC)	항로 물동량 확보 방안, 집화 체계·전자상거래, 항로 연장·선종 의견 교환 참석자: SMC 류지룽 총감·우페이 경리·동방효 주제주대표처 대표 등 3명, 제주연구원 2명
10. 15.(목) 오후	칭다오시 크루즈·요트협회	칭다오 크루즈·요트산업 현황 청취, 해양레저·MRO·대회 연계 협력 의견 교환 참석자: 협회 회장단위(산둥항만 크루즈문화관광발전그룹) 리지펑 회장, 채중 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 호샹쉰 부총경리, 우링링 사무실 주임 등 4명, 제주연구원 2명
10. 16.(금)	귀국	칭다오 → 부산(KE2082, 13:15~16:10) → 제주(KE1549, 20:20 도착)

Ⅱ. 출장내용

1. 출장 배경

○ (연구과제) 제주연구원은「제주-산둥성 교류 확대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둥의 정책 의제·산업 구조와 제주-산둥 교류 실적을 분석하여 2027년부터 착수할 협력모델(안)을 마련하는 과제임

- 협력 가능성 평가(12점 만점)에서 소비재·식품 11점, 관광 9점, 교육 8점, 문화·기후에너지 7점으로 나타났으며, 물류·통상(제주-칭다오 항로)은 여타 분야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실행 기반으로 설정함
- 산둥의 지속 협력 사례는 상설 단지·정례 박람회·정기 노선이 연계되어 운영되는 구조이며, 한국 협력의 창구 도시는 웨이하이로 확인됨

○ (교류 현황) 제주와 산둥은 2008년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행정·청소년 교류를 지속하여 왔고, 2024년 7월 교류주간에서 13개 분야 의향서를 교환함. 2025년 10월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정기 항로가 개통되어 2026년 8월까지 44항차·1,004TEU를 운송함

- 2026년에는 칭다오 기업교류회(3월), 산둥성 상무청장 제주 방문(4월), 외사판공실 관계관 제주 방문(5월), 칭다오시장 제주 방문(7월), 칭다오 제주 산둥대표처 설치(9월)가 추진되었음

○ (연속 활동) 제주연구원은 2025년 10월 산둥사회과학원과 협력발전포럼을 개최하였고, 2025년 12월 원장 일행이 산둥성 상무청·칭다오시·SMC를 방문하였으며, 2026년 7·8월 칭다오 방문과 8월 SMC의 제주연구원 방문을 통해 항로 물동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여 왔음

- 본 출장은 이러한 연속 활동의 하나로, 연구 결과를 현지에서 검증하고 2027년 협력 사업에 대한 상대 기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함
- 출장에 앞서 조사의뢰서(국문·중문)와 기관별 회의자료(국문 내부용·중문 제공용), 「제주-산둥 물동량 현황 및 확보 방안(참고자료)」 중문본을 작성하여 방문 기관에 제공함

2.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 10. 12.(월)

- 이동 및 조사 준비

- 제주 → 김포 → 인천 → 지난 이동(TW605, 14:15 도착) 후 산둥성 상무청을 방문함

○ 10. 13.(화)

- 오전 산둥사회과학원, 오후 산둥성 외사판공실을 방문함

○ 10. 14.(수)

- 지난 → 칭다오 이동(고속철 G6913, 11:55 도착) 후 산둥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을 방문함

○ 10. 15.(목)

- 오전 산둥원양해운그룹(SMC), 오후 칭다오시 크루즈·요트협회를 방문함

○ 10. 16.(금)

- 칭다오 → 부산 → 제주 귀국

3. 산둥성 상무청 면담 (10. 12. 오후, 지난)

○ (개요) 상무청 아주처 쉐리 부처장과 산둥의 대외 경제협력 기제, 제주-산둥 경제교류의 성과와 한계, 2027년 사업 방향을 논의함

○ (제주 측 설명 요지)

- (면담 목적) 2026. 4. 상무청장의 제주 방문 시 제안된 항로 활용 확대·녹색저탄소 협력·수입상품박람회 제주 소비재 진출을 2027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조사임을 설명함
- (협력 제안) 수입상품박람회 제주관과 칭다오 상설 판로, 기업교류회·무역상담회 연 2회 정례화, 그린수소·해상풍력 기술교류, 연례 경제협력 실무회의를 제안함
- (통계 협력) 산둥의 대한국 수출과 제주의 대중국 수입을 교차 분석한 연구 방법(1,900여 품목)을 소개하고 산둥 측 통계 협조를 요청함

○ (상무청 측 설명·입장)

- (협력 기제) 산둥성 상무 분야에서 지속 운영되는 협력 기제는 2개에 한정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한국-산둥성 경제통상협력회의」(2015년~, 2026. 11. 산둥에서 제9차 개최)와 싱가포르 무역산업부와의 경제무역이사회(1993년~, 2026. 3. 제26차)로, 모두 국가 단위 상대와 교대 개최하는 방식임
- (지방 단위 기제) 한국의 여타 지방정부와는 자매·우호도시 틀 안의 연석회의에서 경제무역이 하나의 분야로 취급되며, 성정부가 특정 도·시와 별도의 경제무역

전용 기제를 설치한 사례는 없음. 중앙 기제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매·우호 틀 안에서 경제·문화를 함께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임. 웨이하이-인천 공동위원회는 한중 FTA 시범구라는 국가 플랫폼이 있는 특수 사례임

- (교류 성과 평가) 2026. 3. 기업교류회 이후 실질 성과는 미미함. 중국 수입상 입장에서 제주 측 물량 부족, 제주 산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함. 실질 사례는 제주의 소주 공병 수입(10월 말 계약, 11월 출하 예정)으로 상무청이 산둥 기업을 매칭한 건임
- (신규 제안에 대한 반응) 제주 측이 제시한 전자상거래 물류 연계안(웨이하이 소재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물류창고와 칭다오-제주 항로를 연결하여 도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제주 소비자에게 직구 물류를 제공)에 대하여 「발전성 있는 제안」으로 평가함

○ (면담 의의) 성 단위 자매도시 격상 협약 안에서 경제 협력을 다루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 소량 고가 품목보다 생활 밀착 품목과 전자상거래·원부자재 물류가 항로 화물 확보에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함. 상무청은 한국-산둥성 경제통상협력회의 자료 제공과 보고서 공유에 협조하기로 함

의제	제주 측 제안·발언	상무청 측 입장
협력 기제	아주처를 창구로 한 연례 경제협력 실무회의	성 단위 전용 기제 사례 없음, 자매·우호도시 틀 안에서 경제 분야 포함이 합리적
소비재 판로	수입상품박람회 제주관, 칭다오 상설 판로, 기업 매칭 정례화	식품류는 가격 경쟁 과제, 물량 규모가 작아 기업 매칭 성과 제한적. 소주 공병과 같은 실질 사례 우선
항로 물량	전자상거래 직구 물류·건축 자재 직수입 연계	발전성 있는 제안으로 평가, 물량 증가 시 물류 기업 검토 가능
자료 협조	경제통상협력회의 자료, 산둥-한국 통계	제공 협조, 보고서 완성 후 상호 공유

4. 산둥사회과학원 면담 (10. 13. 오전, 지난)

○ (개요) 사회과학원 관뎬안(管典安) 대외협력처 주임, 취펑샹 부원장과 함께 양 기관 정례 포럼의 운영, 공동연구 방식,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논의함

○ (제주 측 설명 요지)

- (연구 소개) 산둥 신문 4종 18만 5천여 건과 산둥성 정부문건 4,601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와 협력 가능성 평가를 공유하고 검토 의견을 요청함
- (협력 제안) 정례 포럼의 교대 개최, 공동연구 주제(교류 성과평가 지표, 해양항운·물류, 해양문화관광, 탄소중립·기후테크, 환황해 지방협력, 과학기술·AI), 연구자 단기 방문연구와 간행물 상호 기고를 제안함

○ (사회과학원 측 설명·입장)

- (교류 평가) 2024년 교류주간 이후 3년간 양 기관 교류가 약 10회에 이르며, 2024년 교류주간에서 해양경제문화연구원-제주연구원 협력을 사회과학원 전체 협력으로 격상하였다고 설명함. 정례 포럼은 이미 4회째로 상시화되었고 공동연구·성과 공동발표도 진행 중이므로, 자매도시 격상 과정에서 양 성(도)의 최고 싱크탱크로서 협력을 심화하자는 입장임
- (운영 방식) 경기연구원과의 발전포럼(19회)·인천연구원 교류 경험에 비추어, 포럼 일정은 상반기에 기본 일정을 확정하고 회기 3개월 전부터 세부를 확정하며, 성 지도부 방한 등 계기가 있으면 장소를 조정함. 공무 출국 심사가 엄격하여 양측에 상시 연락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함
- (공동연구) 포럼을 매개로 동일 주제를 양측이 각자 집필하여 중문·한글로 발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민감한 주제는 성·도 지도부 내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함
- (협력 분야 의견) 소비재·식품이 1순위라는 데 동의하되 제주 생산 능력과 중국 시장의 비대칭을 고려하여 중국 경유 제3국 수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신에너지(제주에너지공사)·탄소중립·AI 디지털·상업우주·양로 헬스케어 관광이 유망하다는 의견, 칭다오-제주 직항 부재가 관광 교류의 최대 장애라는 지적이 있었음
- (역할 평가) 2025년 제주연구원장 방문 시 사회과학원이 상무청 부청장·아주처를 연결한 것이 제주의 소주 공병 매칭과 항로 관련 소통의 오해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두 기관의 관계를 양 지역 교류의 기반으로 표현함

○ (면담 의의) 정례 포럼 운영 원칙(교대 개최・상반기 확정・연락 창구)과 공동연구 방식(각자 집필・양국어 발행)에 대한 합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1. 4. 제주 포럼에서 2027년 공동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기로 함

의제	제주 측 제안	사회과학원 측 입장
정례 포럼	연 1회 교대 개최, 교류주간 연계	이미 4회째 상시화, 상반기 일정 확정・연락 창구 필요
공동연구	6개 주제, 공동 집필・발간	포럼 매개 각자 집필・양국어 발행, 민감 주제는 내부 참고자료
협력 분야	소비재・식품 우선, 해양・교육・기후에너지	동의하되 제3국 수출 연계, 신에너지・AI・관광 유망, 직항 부재 과제
연구자 교류	단기 방문연구, 간행물 상호 기고	이번 방문을 단기 방문연구의 예로 인정, 자료 교환・번역 협력

5. 산둥성 외사판공실 면담 (10. 13. 오후, 지난)

○ (개요) 외사판공실 아주처 왕샤오빙 처장・진위강 부처장・리연통 부처장과 산둥행정학원 조뤼 교수・지난대학 장수 교수가 참석한 좌담 형식으로 진행됨. 산둥 개황과 대한국 교류 현황 설명에 이어 자매도시 격상 이후의 협력 구상을 폭넓게 논의함

○ (제주 측 설명 요지)

- (면담 목적) 2027년 3월 자매도시 격상을 앞두고 인문교류 중심에서 산업・실질 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사임을 설명하고, 항로・기업교류회・소주 공병 수입・민간 우주산업・직항 부재 등 현안을 소개함
- (협력 제안) 격상 협약에 협력 분야와 연 1회 이상 정례 실무회의를 명시하고, 외사판공실(행정・인적 교류)과 상무청・칭다오시(경제)로 협의 채널을 구분하며, 한국 협력 창구 도시인 웨이하이를 칭다오와 함께 협력 도시로 설정하는 모델(안)을 설명함

○ (외사판공실 측 설명・입장)

- (산둥 개황) 2025년 지역총생산 10조 위안 상회(북방 1위), 인구 1억 명, 농산품 수출 27년 연속 전국 1위(상당 부분 한국・일본행), 화공 1위, 상업우주・신에너지 등 신흥산업, 유학(儒学)의 발상지로서 한국과 유학 대화를 운영함. 한국 9개 광역 지방정부와 결연하였고 제주와의 관계 격상에 기대를 표명함

- (역할) 제주도·제주연구원이 상무청·항만그룹과 직접 교류하는 수준이 외사판공실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외사판공실은 연결·중개 역할이며 구체 수요를 제시하면 성 내 자원을 매칭하겠다고 함. 2026. 5. 제주 방문 시 동행한 웨이차이그룹의 신에너지 제품을 제주에너지공사가 구매 추진한 사례를 근거로 상호 방문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다고 설명함
- (제3국 시장) 산둥 기업이 한국 군산에 합작 공장을 설립하여 유럽·미주로 수출하는 사례를 근거로, 제주 시장이 협소하여도 산둥의 아시아 네트워크와 결합하면 「공동 제3국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제안함. 제주 측의 중고차 항로-철도 복합운송(칭다오 경유 중앙아시아) 구상에 호응함
- (점-선-면 구상) 분야별 결합점(농업·요트·제조·상업우주·공무원 교육·역사문화·박물관)을 구축한 후 플랫폼(녹색발전 포럼, 산둥-동북아 연결 포럼, 도서 녹색화 포럼, 유학 포럼)으로 연계하고 교류주간과 같은 브랜드로 통합하자는 구상을 제시함. 초기에는 소수의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2027년부터 브랜드화하자고 함
- (행정학원·대학) 산둥행정학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과의 공무원 상호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와 공무원 연수반·공동연구를 제안하였고, 지난대학은 제주연구원과 동일한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한국·산둥 신문을 각자 분석하는 공동연구를 제안함

○ (면담 의의) 외사판공실이 격상 협약의 실무 창구로서 분야별 수요 매칭과 플랫폼 구상을 적극 제시하였고, 위챗 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 소통하기로 함. 도지사가 산둥성 지도부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항로에 대한 성 차원의 관심이 확인되었음

의제	제주 측 제안	외사판공실 측 입장
격상 협약	협력 분야·정례 실무회의 명시, 채널 이원화	격상 환영, 구체 수요 제시 시 자원 매칭
경제 협력	항로 기반 물류·상담회, 웨이하이 창구	공동 제3국 시장 개척 모델, 점-선-면·브랜드화
플랫폼	교류주간 상호 참가, 환해연안 협의체	녹색발전·동북아 연결·도서 녹색화·유학 포럼 제안
인력·연구	공무원 교류, 공동연구	행정학원 연수반, 지난대학 텍스트 분석 공동연구

6. 산둥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회의 (10. 14. 오후, 칭다오)

○ (개요) 쉬광핑 원장, 박문진 연구원, 주젠펑 대외협력처 주임을 면담하여 해양 분야 공동연구 주제와 양 기관 정기학술교류 준비를 협의함.

○ (제주 측 설명 요지)

- (공동연구) 해양항운·물류, 해양문화관광, 수산·양식·해양목장, 블루카본·해양에너지, 해양 MRO·해양레저의 5개 주제를 제안하고, 요트 MRO는 선박 수리·정비·거래 개념임을 설명함
- (교육 교류) 제주대학교 「런케이션(러닝+베케이션)」 프로그램 조건을 확인하여 산둥 연구자 참여 방안을 협력안에 반영하기로 함

○ (연구원 측 설명·입장)

- (유망 분야) 2025년 이후 한중 지방 교류가 활발하며, 중국인 무비자 이후 제주는 중국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이므로 문화관광이 조기에 성과를 낼 분야라고 평가함
- (제안) 제주 측 5개 주제를 세분화하여 11. 4. 포럼에서 제안하기로 하고, 추가 주제로 옌타이 창다오의 「국제 제로카본 섬」 사례(제주 탄소중립 연계), 산둥의 양식·국가급 해양목장(76개, 전국 1위), 칭다오의 해양생물의약·해양바이오(남극크릴 해양 인지질 산업, 제주 해조류·기능성 화장품 연계)를 제시함
- (관광·교육) 중국 소비가 자녀 교육과 건강에 집중되는 추세를 근거로 초·중·고 학생 교육여행(방학 중 제주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한 2~3주 교육캠프)과 노년층 단체 관광을 제안함. 제주의 체류형 관광 방향과 부합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함
- (산업 관점) 제주의 제조 기반이 취약하므로 물류 물량 확대보다 과학기술을 통하여 제품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공동연구 방식) 2027년 두 기관 공동연구를 추진하되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결과는 내부 보고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함

○ (면담 의의) 11. 4. 제주 포럼에서 양측 제안을 상호 비교·조정하여 2027년 공동연구 주제를 확정하기로 하였고, 11. 3.~6. 제주 측 일정(환영 만찬, 포럼, 제주 칭다오사무소 방문)을 확정함

의제	제주 측 제안	연구원 측 입장
공동연구	해양 5개 주제	세분화 제안, 제로카본 섬·해양목장·해양바이오 추가
관광·교육	러닝+베케이션 연계	학생 교육여행·노년층 관광 상품, 체류형 관광 공감
11월 포럼	제주 측 3명 참석	창다오 사례 발표, 만찬·일정 확정

7. 칭다오시 크루즈·요트협회 면담 (10. 15. 오후, 칭다오)

○ (개요) 협회 회장단위인 산둥항만 크루즈문화관광발전그룹의 리지펑 회장, 채중 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 호샹쉰 부총경리, 우링링 사무실 주임을 면담하여 칭다오 크루즈·요트산업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제주 측 설명 요지)

- (면담 목적) 제주는 해양레저·크루즈 관광 수요는 크지만 요트·선박 MRO 기반이 미비하여 칭다오의 경험과 정책 자문이 필요하며, 투자 요청이 아니라 도정 100대 과제(MRO 육성)의 방향 설정과 산업 연계가 목적임을 설명함
- (협력 제안) 요트 정비 기술·인력 교류, 극동컵(遠東杯) 범선 대회·국제 범선 주간의 제주 기항, 크루즈·요트 관광 연계, 해양레저 교육 교류, 제도 정보 교류를 제안함

○ (협회 측 설명·입장)

- (크루즈) 칭다오 모항은 산둥 유일의 국제 크루즈 개방 항구로, 중국발 크루즈는 제주 무비자 제도에 따라 대부분 제주를 기항함. 중일 관계 악화로 일본 기항이 중단된 이후 제주-인천·제주-부산 기항으로 전환되어 승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중국 연해 14개 모항 가운데 장기 고정 운항은 상하이에 한정됨. 중국 교통·문화관광 당국과 논의 중인 「쌍방향 모항」(한국인은 제주에서 승선하여 중국에서 하선, 중국인은 반대 방향) 모델에 제주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MRO) 칭다오는 대형 조선소를 보유하여 대형선 건조·수리가 가능하고 요트 설계·건조가 집적되어 있으나, MRO를 하나의 산업정책으로 추진하는 정부 체계는 칭다오도 아직 미비함. 국유기업의 해외 투자 심사가 엄격하여 경자산 운영 협력 위주임. 크루즈 전용부두의 해관 감독 보세창고(선용품 보세)와 보세유급유는 제주에도 필요한 시설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협력 제안) ① 칭다오의 해안 요트항 계획(147km 해안, 부두 13개소)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요트항 계획 자문 ② 제주 요트항과 칭다오 크루즈모항 요트항의 「자매항」 결연(칭다오 요트·범선 출입국은 모항에서만 가능) ③ 협회의 「1회의·1전시·1대회」(매년 7월)와 연계한 칭다오-제주 범선 경주 또는 양 도시 장소 경기 조합 ④ 2027년 전국 바다낚시(海釣) 대회의 제주 경기 추가 ⑤ 칭다오 범선 인력의 동계 제주 교류 ⑥ 연례 「해양 주간」 축제 연계

- (항공·홍보) 칭다오-제주 직항(주 2회)이 최근 중단되었고 한국인의 칭다오 인지도가 낮아 전세기와 SNS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면담 의의) 협회가 대회·자매항·요트항 계획 자문 등 구체 협력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고, 2024년 의향서(제주크루즈산업협회-칭다오 북방크루즈여유발전연구센터)가 실행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확인함. 협회·그룹과 위챗 연락망을 구축하고 11월 초 정리 내용을 송부하기로 함

의제	제주 측 제안	협회 측 입장
MRO·요트 산업	정비 기술·인력 교류, 정책 자문	요트항 계획 자문·자매항 결연 제안, MRO 정부 체계는 칭다오도 미성숙
대회 연계	극동컵 범선 대회·범선 주간 제주 기항	칭다오-제주 범선 경주·장소 경기, 바다낚시 대회 제주 경기
크루즈·관광	모항 크루즈-마리나 체험 결합	쌍방향 모항 모델, 심도 관광 상품, 전세기·홍보 필요
제도	CIQ·보세수리 정보 교류	크루즈 부두 보세창고·보세유 사례 공유

8. 면담 결과 정리 및 귀국 (10. 15.~16.)

○ 10. 15.(목) 면담 종료 후 6개 면담 기록을 정리하고 수집 자료 점검

○ 10. 16.(금) 칭다오 → 부산 → 제주 귀국 후 면담 핵심 내용을 기관별로 정리함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격상 협약의 실무 설계) 산둥성은 성 단위 경제 전용 기제를 두지 않고 자매·우호 틀 안에서 경제·문화를 함께 다루므로, 자매도시 격상 협약에 협력 분야와 정례 실무회의를 명시하고 외사판공실(행정)과 상무청·칭다오시(경제)로 채널을 구분하는 모델(안)이 산둥 측 운영 방식과 부합함

- (실질 사례 축적의 중요성) 상무청·사회과학원·외사판공실 모두 제주의 소주 공병 수입을 유일한 실질 성과로 제시하였으며, 웨이차이 신에너지 제품 구매와 같이 상호 방문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사례가 신뢰를 형성함. 2027년 사업은 분야 확대보다 실질 사례의 추가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항로 물동량의 병목) 물동량 확대의 병목은 선사 영업보다 제주 측 제도·인프라에 있음. 무역 지원 조례의 요건 정비, 화주 보조의 명확화·신속

지급, 전자상거래 소포 통관 체계, 칭다오 보세창고 집화, 제주항 냉동·창고 인프라가 선결 과제이며 연구보고서의 물동량 확보 방안에 반영함

- (제주 규모의 한계와 제3국 시장) 제주 생산 능력과 중국 시장의 비대칭을 다수 기관이 지적하였으므로, 산둥 경유 제3국 수출(중앙아시아 철도 복합운송, 산둥 기업과의 합작 수출)과 과학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향을 협력모델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 협력 기반 구축) 사회과학원은 두 기관의 관계가 상무청·선사 연결과 소통의 오해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정례 포럼(4회째)과 공동연구(각자 집필·양국어 발행)의 운영 원칙에 대한 합의 기반이 마련됨. 11. 4. 제주 포럼에서 2027년 공동연구 주제를 확정함
- (해양·관광 협력의 신규 주제) 제로카본 섬, 해양목장, 해양바이오, 학생 교육여행, 쌍방향 크루즈 모항, 범선 경주·자매항 등 산둥 측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주제는 협력모델(안)의 해양·관광 분야를 보강하는 소재임. 다만 투자 유치보다 운영 협력·자문·대회 형태가 현실적임
- (직항·접근성) 칭다오-제주 직항 중단이 관광·연구 교류의 공통 장애로 지적되었으므로, 전세기·크루즈·항로 연장을 연계한 접근성 개선 과제를 도 관계 부서와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출장 결과의 활용 계획

- (연구 반영) 면담 내용은 연구보고서의 협력모델(안)·기관별 협력 과제·물동량 확보 방안에 반영함
- (후속 조사) 11. 3.~6. 제주 포럼과 11월 2차 칭다오 현지조사에서 공동연구 주제·대회 연계·집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협회·외사판공실과 구축한 연락망을 통하여 자료를 보완함
- (도정 지원) 지원 조례 개정·화주 보조·소포 통관·보세 집화·냉동 인프라 등 제도 과제와 요트항 자매항·범선 대회·학생 교육여행 제안을 도 관계 부서(평화외교과·국제물류추진단·관광·해양수산)에 전달함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국외공무수행계획서-중국 산둥성 지난・칭다오(2026. 10. 12.~16.) [기제출, 별첨]

○ 현지 일정 증빙자료 [별첨]

- 항공권(e-티켓) 사본: 제주-김포(KE1118), 인천-지난(TW605), 칭다오-부산(KE2082), 부산-제주(KE1549), 지난-칭다오 고속철(G6913) 승차권
- 숙박 영수증(지난 2박, 칭다오 2박)
- 개인정보(성명 일부・항공권 번호 등) 삭제 처리

○ 면담 자료: 기관별 회의자료 통합본(국문 32쪽・중문 31쪽), 「제주-산둥 물동량 현황 및 확보 방안(참고자료)」 중문본, 조사의뢰서(국문・중문)

○ 출장 사진(회의・기관 방문): 아래 사진 1~8



사진 1. 산둥사회과학원 면담(10. 13.)



사진 2. 산둥성 외사판공실 면담(10. 13.)



사진 3. 산둥사회과학원 관계자 의견 교환(10. 13.)



사진 4. 산둥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면담(10. 14.)



사진 5. 해양경제문화연구원 관계자 의견 교환(10. 14.)



사진 6.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주요 업무 현황 설명 청취(10. 14.)



사진 7. 칭다오시 크루즈・요트협회 면담(10. 15.)